

■ 법률 칼럼

영주권 갱신과 범죄 기록



영주권 갱신을 준비하면서 범죄 경력이 영주권 갱신 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영주권 갱신은 현재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것만 증명하기만 하면 별문제 없이 갱신이 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게 심각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갱신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추방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영주권 갱신을 하는 경우, 본인이 관련된 범죄가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1996년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미국 입국 후 (또는 영주권을 받은 후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심각한 상해 등)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시민권자를 제외한 누구나가 경/중범죄를 불문하고 실형 여부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간주됩니다.

되는지 따져보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범죄를 1996년 9월30일 이후에 저질렀다면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되는 범죄 (Moral Turpitude Crime)의 경우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주권 갱신 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범죄는 살인, 강간, 절도, 사기, 배우자 폭행, 납치, 아동학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도덕적 흠결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실제 형량이 6월 미만이고 최고 형량이 1년 미만인 Petty Crime을 제외한 그 이상의 실제 형량과 그 이상의 최고 형량이 가능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주권 갱신 시에 추방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은 영주권 카드를 갱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자동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을 하지 않더라도 이민국 시스템상으로 여전히 영주권자입니다. 단지 본인이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영주권이 없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을 잘 참고해 영주권자가 된 이후 형사법적인 범법 사실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을 하기 전에 반드시 그 범법 사실이 이민법상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사진=shutterstock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6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치매의 진단과 치료

치매는 노년층의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메디케어 서베이에 따르면, 치매가 심부전 다음으로 높은 사망 원인으로 전체 사망 원인의 약 19%를 차지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치매의 유병률은 65세 이상에서 약 11.3%이고 나이가 들면서 유병률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또한 치매는 여성에게 더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미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3분의 2는 여성입니다.

치매의 주요 초기 증상 중 하나가 기억력 저하이지만 환자 본인이 이러한 증상을 의사한테 직접 호소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주로 가족들이 이런 증상을 먼저 인식하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망증과 초기 치매가 증상이 비슷하여 오인되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는 새로운 기억의 저장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 대하여 힌트를 주어도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건망증의 경우는 기억을 부분부분 못하며 힌트를 주면 생각해 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증상으로는 지남력 및 공간 지각력 장애(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음), 언어 능력 장애(단어가 잘 안 떠오름), 추리 능력 장애(예측하지 않은 상황에 잘 대처 못함), 복잡한 업무 처리 능력 저하(은행계좌 관리를 못함) 등이 있습니다. 노화에 따르는 정상적인 인지기능 저하는 주로 기억력과 정보처리 속도의 경한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정상 노화와 구분되는 치매의 중요한 특징으로는, 정상 노화에서의 인지기능 저하는 일상생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이차적으로 기분의 장애, 망상, 환각, 성격의 변화 등이 흔히 나타나는데, 노인우울증의 경우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한 가성치매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서 꼭 감별진단해야 하는 질

환입니다. 치매는 뇌기능의 전반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원인 미상의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20-30%, 기타 원인으로 인한 치매가 10-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로 사용 중인 치매 치료약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약물(도네페질)과 NMDA 수용체 길항제(메만틴)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두카누맙이 18년 만에 새로 나온 치매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하였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생기는 것인데, 아두카누맙이 이 아밀로이드를 줄이는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환자의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대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순환을 개선하고, 뇌세포 대사를 촉진시켜서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용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근력 및 유산소 운동과 함께 날말 맞추기, 퍼즐, 그림 그리기 등의 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각종 디스크 및 협착증세 치료 최고 권위 전문의!



Dr. 윤동준
서울대학교/ UC Irvine
LA 척추신경의대
CA척추신경보드 전문의
CA척추신경협회 정회원
미주척추신경협회 정회원
가든 그로브 개업 31년


디스크 협착증 증세로 고통 받는 분들이 수술 않고, 통증 없는 치료 후 기적 같으며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 모습 보며 큰 보람을 느낍니다.

목 · 허리 디스크 탈출증 / 좌골신경통 / 퇴행성 디스크 / 척추관협착증 / 만성요통

★ 각종보험 및 메디케어 환영 (HMO Group : SMG, CENTER 환영)

진료과목 (각종 근육, 신경장애 및 스트레스성 통증)

- 머리 두통/어지럼증/안면마비증세
- 목 목디스크 (팔과 손가락 통증 및 마비증상 동반) / 목 통증 및 뻣뻣한 증상
- 어깨 굳거나 빠진 통증 / 어깨가 안들어가는 증상 (Frozen Shoulder) / 오십견 / 견비통
- 등 척추측만증 (Scoliosis) 특수교정 (특히 초등학교 때 조기 검진중요)
- 허리 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엉치, 다리, 발바닥 및 발가락 저림, 마비증상 동반) / 퇴행성 관절염 / 요통 / 산후 허리통증
- 팔 팔꿈치 통증 / Tennis Elbow / 손목 / Carpal Tunnel Syndrome / 손, 손가락 저림증 및 무감각 증상
- 다리 좌골신경통 (다리, 발바닥, 발가락 통증, 저림 및 마비증상 동반) / 무릎통증 / 발목통증 / 변증상



- 31년의 풍부한 임상경험
- 흉내 낼 수 없는 풍부한 의학 지식
- DRX 9000 (최첨단 디스크 감압치료기) 위에 3가지가 모두 함께 공존하며 운동준 원장이 직접 정성으로 치료하기에, 정확한 진단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고 따라올 수 없는, 높은 성공률의 각종 디스크 치료의 "최고 권위 전문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및 각종 일반사고 후유증 전문치료

Yoon Chiropractic 윤동준 척추신경 병원 714.539.1717
12620 Brookhurst St. #5, Garden Grove

Brookhurst St	Lampson Ave	Euclid
	Garden Grove St	
	22 Fwy	